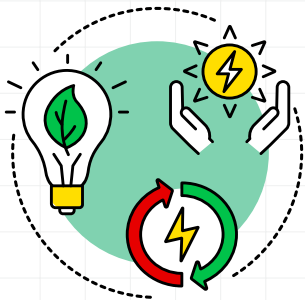


2022년 1분기 이슈리포트

전기·에너지·자원SC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기·에너지·자원 산업계의 준비



전기·에너지·자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많은 이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도 형사 처벌 대상. 손해액의 5배까지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던 경영책임자도 처벌 대상.
- '사업주의 범위를 넓게 규정해 재해예방 위한 안전보건의무자의 범위 확대.
- '중대재해'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개념보다 확대 정의. 최고경영자까지도 처벌.
-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관리상 조치.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예외. 징벌적 손해배상도 예외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2024)부터 시행



2021년 전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828명입니다.

이중 산재 사고사망자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되거나 배제된

50인 미만 사업장은 80.7%,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2.2%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10명 중 3명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종사자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81.05%를 차지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 재해에

특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 전기 사고는 얼마나 될까요?

최근 5년간 행위별 감전사고 현황(단위: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2,509**명입니다.

이중 사망자는 94명으로 **매년 평균 약 20명**으로 파악됩니다.

전체 전기 감전사고 사상자 중 75%(1,883명)가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 현장에서 주로 일하는 중장년층 피해가 가장 큼니다.

전체 전기 사고 사상자의 46.7%(1,174명)가 중장년층인 40~60대이며,

이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는 84.7%(994명)를 차지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 ◆ 기계의 설비 결함 및 노후 설비, 근로자의 부주의, 취약한 안전 시스템, 위험의 외주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부족 등 다양합니다.
- ◆ 특히 중요하게 지적되는 원인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효율이라는 시장논리로 현장의 안전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업재해의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까요?

사고의 관리적 원인으로는
안전관리 결함과 부적당한 인원배치 및 작업지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관리적 원인

기술적 원인

기계 설비 불량 및 점검 불량 등

15.55%

교육적 원인

안전지식 부족 및 경험훈련 미숙, 교육 불충분 등

6.14%

작업관리상의 원인

안전관리 결함 및 인원배치·작업지시 부적당 등

63.57%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안전방호 장치결함, 불안정한상태 방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직접적 원인

불안정한 상태

물자체의 결함	3.82%
안전방호 장치결함	36.29%
복장보호구의 결함	9.14%
물의 배치 및 작업장소 불량	9.00%
작업환경의 결함	2.86%
생산공정의 결함	3.55%
경계표시, 설비 결함	3.00%
기타	21.28%

불안정한 행동

위험장소 접근	1.50%
안전장치 기능제거	0.95%
복장·보호구의 잘못 사용	17.33%
기계·기구의 잘못 사용	1.91%
운전 중인 기계장치 손질	4.37%
불안정한 속도조작	0.82%
불안정한 상태방치	37.65%
불안정한 자세동작	0.68%
감독 및 연락 불충분	11.46%
기타	9.96%



비숙련 근로자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숙련공 부족 문제가**
 재해 발생의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속연수별 산업 재해 발생 비율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34.48%	8.20%	8.10%	4.70%	4.36%	2.67%	8.54%	28.18%

실제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해 발생률이 42.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숙련된 인력의 기반 확충과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숙련 인력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실제 ‘산업 재해’를 중심으로 연관 키워드의 기사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됩니다.

- ◆ 현장에 곧바로 투입된 **비숙련 근로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 **하도급으로 인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숙련공보다 비숙련 근로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저임금이 토착화되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은 기능인력 시장에 신규 진입을 꺼리고 기존 숙련공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로 인해 기술 인력이 양성되지 않고 산업시장의 기반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숙련 기술자 양성**을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체계적인 지원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경우 **숙련자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 **일본**은 2060년 생산 가능 연령 인구(만 15~64세)가 1995년 대비 49.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 실습(OJT·On-the-job Training)**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 ◆ **미국**은 **견습(Apprentice)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970년 교육 기금을 통해 견습생들의 현장 실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이 3만 달러를 넘는 공공사업의 경우 견습생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해 신규 인력 유입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숙련자양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 ◆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간접 체험하고, 근로자들의 현장 중심 교육으로 사고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요구됩니다.
- ◆ 작업관리, 안전장치 장치결함, 불안전함 상태 방치 등이 주요 사고원인인 만큼 기초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경영주는 안전에 투자해야 합니다.
- ◆ 한편,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기술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송 사옥에 전기안전체험관을 건립·운영하고 있습니다.

